

“거룩함을 위해 음란을 버리라”

여성가족부, 동성애 합법화 목표 정책

기독교단체, 국민합의 없는 성평등정책은 무효 “반발”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성관련 정책의 기본계획을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을 기반으로 시행하고 있어, 관련 기독교단체 및 기독교인들이 이 같은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긴급기자회견 및 규탄대회를 잇따라 개최하고 있다.

동성애·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이하 동반연)은 지난 11월 30일 정부서울청사 여가부 정문 앞에서 ‘동성애 법제화하려는 여가부 성평등 정책 규탄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동반연은 “중앙행정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향후 5년간(2018~2022)의 성관련 정책을 준비 중인 여가부가 기본계획을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을 기반으로 시행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여가부가 양성평등을 성평등 정책으로 바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영역에 성소수자를 포함하는 젠더평등을 실현시키려고 하며, 향후 5년간 새 정부 성평등 정책으로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반연은 “여가부는 우리나라 전통가족제도를 위협하는 짓과 대한민헌법 양성평등이념에 어긋나는 위법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바성연)과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건사연) 등 시민단체들은 29일 성평등(동성애옹호)정책 반대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여가부의 계획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과 양성평등기본법의 기본정신에 어긋나기에 위헌이며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지난 11월 16일 공청회를 통해 여가부가 밝힌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국민적 논의와 합의도 없이 모든 교육에서 성평등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며, 성차별금지법을 제정하며, 양성평등위원회를 성평등위원회로 바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에 적극반대한다고 밝혔다. [GNPNEWS]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데살로니가전서 4:3)

기도 | 하나님, 음란을 자랑삼는 이 어리석은 무리를 책망하시고 이들이 거룩함을 열망할 수 있는 마음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이때에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님 말씀 앞에 서서 아버지의 영광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복음기도 포토에세이

성경을 상고하라



- 감비아 브리카마 주일성경학교

제공: WMM

주일

예배가 끝나고 브리카마 교회 마당에 사람들이 모였다. 아이들은 천진스레 놀고 있는데, 어른들은 무엇을 묵상하는지 제각각 고개를 깊숙이 떨고 생각에 빠졌다. 사도행전에서 베뢰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렇게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죄

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진리가 과연 그러한가?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존재의 심연을 비추시고 진리의 빛 가운데로 이끄신다. 됐다 치고 넘어가지 않고, 믿었다 치고 넘어가지 않고, 말씀 앞에 나아가 고개를 숙인 자들은 진리를 얻는다. 마음을 가린 존재의

수건이 벗겨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다. [GNPNEWS]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전도서 12:12~13)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48)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세상은 왜 악한 거죠?

누구나 기쁜 소식 즉, 복음을 듣기 원한다. 복음을 갈망하는 영혼들을 위해 다양한 믿음의 고백들을 겨자씨선교회에서 제작한 전도지에서 발췌, 소개한다. <편집자>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전히 세상이 악하고 불행한 것이 이상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안 계시다고 결론 내리셨습니까? 당신 말씀대로 세상은 악합니다. 가정파괴, 살인, 유괴, 테러, 이유도 없이 희생자를 만들어 내는 범죄, 어린이와 여자가 유린당하고 서로 죽이는 전쟁... 이쯤해서 당신은 다시 한번 울분에 차서 항변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그 나

쁜 놈들을 확 쓸어버려야 할 것이 아니야?”

맞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므로 심판으로 이 세상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할 인간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정의감으로 격분하시는 당신마저도 심판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자신 있으십니까? 그는 흠 없으시고 완전한 거룩 그 자체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심판의 주체이시며, 심판의 기준 역시 하나님 자신이신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난 그래도 흉악한 죄인들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은

누구의 판단인가요? 당신 말대로 그래도 남보다 더 악하고, 더 선한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 된 본성 때문에 당신도 상황과 조건만 맞아떨어지면 당신이 비난하던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보다 지금 세대가 특별히 더 악합니까? 미디어의 발달로 더 많이 알려진 것뿐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더 악한 민족이나 나라가 없습니다. 모두 다 흉악합니다. 기다리십시오. 조금만 기다리시면 당연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당신을 위해 참고 계심



일러스트= 김경선

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고 영원한 지옥 심판에서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심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떨치지 마십시오. 속히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십시오. [GNPNEWS]

*** 신앙상담 316전화**
이 글을 읽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하세요. 복음의 소리 '316전화'
☎ 1670-3160

INSIDE

- 뉴스 |** 세계
세속화된 OECD 국가들, 친동성애 정책 반발 2면
- 기획 |**
동성애자를 교회 성도로 받아들여주는 성명을 반박한다 3면
- 인터뷰 |** 강정규, 윤영지 선교사
“모든 영역에서 복음 되신 주님의 주인이 되셨어요” 5면



- 칼럼 |**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를 일으키는 것은 대단한 기적이 아닌 세미한 음성” 6면

복음과기도미디어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소망하며 미디어로 열방을 섬기는 초교파 선교단체입니다.

세계

세속화된 OECD국가들, 친동성애 정책 만발



▶ 도쿄에서 열린 Tokyo Rainbow Pride Parade 2016(출처: 유튜브 영상 캡처)

최근 경제적 풍요와 함께 급격히 세속화되고 있는 경제사회이사회(OECD) 소속 국가들이 친동성애 관련 법률을 잇따라 제정하거나 지원정책을 마련, 추진하고 있다. 최근 외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육체적 성과 반대의 성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성(性)동일성장애를 가진 자로 규정하고 이들이 성전환수술을 받을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 최대 30%만 부담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일본은 지난 2004년 성 동일성장애 특례법에 따라 성전환수술을 받은 사람에게 호적상의 성별을 변

경해주고 있다. 그동안 의료기관에서 이같은 진단을 받은 사람은 2만 2000명이며 성별을 변경한 사람은 6900명에 이른다. 호주에서는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법안이 지난달 29일 연방상원에서 통과됐다. 연방상원은 3일간의 토론을 거친 뒤 찬성 43표, 반대 12표로 통과시켰다고 호주 언론이 보도했다. 연방 하원은 내주부터 상원안을 놓고 심의에 들어가는데 법안에 수정이 가해질 경우, 수정안은 상원으로 되돌려져 새로운 논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 캐나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과거 정부, 공공기관의 동성애 공직 종사자들이 그동안 부당한 법규와 동성애 처벌로 가혹한 차별을 받았으며 연방정부가 캐나다 국민을 대표해 반성하고 사과한다고 밝혔다. 캐나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보상을 위해 총 1억4500만 캐나다 달러(약 1226억 원)의 기금을 조성, 이중 1억1000만 캐나다 달러로 피해자에게 직접 보상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태희 목사(그안에진리교회)는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세속화되면서 육신의 삶에 빠지게 되면 음란하고 성적인 타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기독교가 쇠퇴하면서 나타나는 사회의 흐름이 동성애 확산과 친동성애적인 정책을 만들어내는 데 일조하고 있다.” 이 목사는 “급격히 세속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성도들에게 친동성애 정책의 문제점과 교회에 끼치는 해악을 잘 설명하고 정책 입안자나 입법자들이 합부로 정책을 만들지 못하도록 반대 목소리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GNPNEWS]

한국

낙태 청원에 대한 청와대 발표는 “반생명적” 비판

최근 청와대가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소위 ‘낙태죄 폐지 청원’(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합법화)에 대한 입장 발표 이후, 기독교계는 엄연한 살인행위인 낙태를 합법화시키려는 부적절한 발표라는 반응을 잇따라 내놓았다. 한국교회언론회는 조국 민정수석이 낙태에 대한 실태조사 방침과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오히려 낙태를 통한 생명경시현상과 문란한 성문화를 바로잡도록 생명존중 교육을 가르치는데 정부가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논평을 발표했다.

또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함준수 대표는 조 수석의 성명이 전반적으로 법에 대한 잘못된 사실과 생명윤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생명적 관점을 갖고 있다며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현행 모자보건법은 임신부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임신중절수술을 시행할 수 있다.”며 “임신중절이 극히 예외적이라고 밝힌 조 수석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또 태아를 죽일 것인가를 결정하는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동등한 가치를 지

닌 것으로 전제한 조 수석의 발언은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생명윤리를 침해하는 견해라는 지적이다. 협회측은 또 낙태를 죄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는 심리적이고 도덕적인 억제 효과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는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낙태 수술을 한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GNPNEWS]

한국

17기 청소년복음수련회 훈련생, 섬김이 모집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17기 청소년복음수련회가 문광교회(최종덕 목사, 경기도 광주시)에서 2018년 1월 22일(월)~26일(금)까지 4박5일간 열린다. 참가대상은 중학교 2학년(2004년생)에서 고등학교 3학년(1999년생)에 해당하

는 모든 청소년이며, 원서 접수 기간은 12월 1일(금)~1월 2일(화)까지다. 원서는 웹사이트(cafe.naver.com/youthgnr)에서 내려 받아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단, 해외일 경우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다. 섬김이는 청소년복음수련회, 복

음캠프 수료자, 복음학교 수료자 가운데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기간은 훈련생 모집 기간과 동일하다. 훈련생 회비는 3만 원. 문의 ☎ 010-3380-5781, 010-7331-7710, 이메일: nggn777@naver.com [GNPNEWS]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11.15~12.2)

복음기도신문은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결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디즈니 만화에 ‘남자 공주’ 등장

디즈니 채널이 만화영화에서 남자 공주를 등장시켜 충격을 주고 있다고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이에 목회자, 미국 가족 협회, 일부 보수 단체들은 “동성애자를 만화 속에서 묘사한 것은 매우 위험하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를 부추기는 디즈니와 세상 문화를 진리로 책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생명 다해 가르치고 전파하는 교회와 주의 일꾼들, 구별된 미디어 영역을 통해 거룩한 다음세대를 일으켜 주십시오.

“흡연으로 매일 1200명 사망”... 美담배회사들 TV·신문에 광고

미국의 담배회사들이 26일(현지시간) 주요 일간지와 방송에 “흡연으로 매일 미국인 평균 1200명이 사망합니다.”라는 광고를 냈다고 미 NBC방송 보도했다. 이는 2006년 흡연의 위험성을 인정하는 문구를 담뱃갑 등에 실으라는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을 받은 지 11년 만이다. 주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놀라운 은혜의 빛이 흡연과 쾌락에 중독되어 있는 자들에게도 비춰지길 강령합니다. 담배로 인한 육신의 말로를 정직하게 직면하고 영원한 삶을 거룩으로 준비하는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보코하람 남녀 4명 동시 자살폭탄테러로 14명 사망 29명 부상

남녀 각 2명씩 모두 4명이 15일(현지시간) 나이지리아 북부 보르노주에서 동시에 자살폭탄을 터트리 범인들을 포함해 모두 14명이 숨지고 29명이 부상했다고 나이지리아 경찰의 말을 인용해 AP 통신이 보도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죽음도 개의치 않는 죄된 생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충족되었다는 진리를 믿으라는 복된 소식을 나이지리아에, 보코하람에게 들려주셔서 살아나게 하옵소서. [GNPNEWS]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17년 12월 11일 ~ 12월 23일

12월 11일~16일

- ▶ 전남 광주 / 십자가복음교회 (김**)010-9883-2347
- ▶ 전북 지역 / 미정 (김**)010-7117-9397
- 12.11~12.14~15(매일 10시~12시)
- ▶ 경기 안산 / 안산순복음교회 (김**)010-8432-3698
- 12.11~12(매일 06~18시)
- ▶ 전북 남원 / 은혜의샘교회 (김**)010-3290-4316
- 12.11~15(매일 14~19시)
- ▶ 경기 시흥 / 은혜교회 (위인아)031-432-1590
- 12.14(06시~12시)
- ▶ 전남 여수 / 여수선민교회 (윤**)010-8482-8651
- 12.15(08시~20시)
- ▶ 경기 김포 / 김포전원교회 (강**)010-4128-0448
- 12.15(22시)~16(22시)
- ▶ 서울 광진 / 한국중앙교회 (황**)010-7766-3100

12월 18일~23일

- ▶ 전남 신안 / 열방선교센터 (강**)010-7364-9982
- 12.18~19,21~22(매일 10시~12시)
- ▶ 경기 안산 / 안산순복음교회 (김**)010-8432-3698
- 12.18~22(매일 14~19시)
- ▶ 경기 시흥 / 은혜교회 (위인아)031-432-1590
- 12.18~22(매일 07~23시)
- ▶ 강원 강릉 / 은강교회 (박**)010-7439-7020
- 12.21(06시~12시)
- ▶ 전남 여수 / 여수선민교회 (윤**)010-8482-8651
- 12.21~22(매일 06시~18시)
- ▶ 전북 전주 / 사론교회 (진**)010-4272-9905
- 12.22(08시~20시)
- ▶ 경기 김포 / 김포전원교회 (강**)010-4128-0448
- 12.22(22시)~23(22시)
- ▶ 서울 광진 / 한국중앙교회 (황**)010-7766-3100

* 느헤미야52기도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은 사전에 연락하시고 참여하시면 됩니다.

동성애자를 교회 성도로 받아들이자는 성명을 반박한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오늘의 뉴스와 트렌드를 분석하고 있는 라디오 프로그램 브레이크포인트의 존 스톤 스트리트의 기고문을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

125년 전의 과학잡지인 차우타우퀸(the Chautauquan)은 “만일 나무 한 그루가 사람이 한 명도 살지 않는 섬에서 쓰러진다면 어떤 소리가 들릴까?”라는 질문을 처음 제기했다. 그 이후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놓고 오랫동안 논쟁해 왔다.

오늘 나는 다른 문제를 제기하려고 한다. 만일 한 그룹이 중요한 주제에 대해 성명을 냈다. 그러나 매우 소수의 사람들만이 관심을 보였다. 그런데 그 관심을 보인 사람들의 의견이 사실상 일치하지 않

는다면, 정말 어떤 논의가 이뤄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그 답은 “No!”이다. 제대로 논의가 이뤄진 것이 없다는 말이다.

‘LGBT+’는 끼워팔기 상술

최근 한 성명서가 발표됐다. ‘생각하는 크리스천 연합’은 “LGBT+(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 동성애자를 교회 성도로 포함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들은 “교회 안에 새 날이 밝아오고 있으며, 모든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동성애 형제자매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동등한 참여자로 확인하고 축하하도록 부름 받았다.”는 것이다.

성경이나 2000년간의 기독교 가

르침에 전혀 매이지 않는, 신학용으로 표현된 새로운 성에 대한 일반적인 설이 긍정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과 전통, 그리고 인간의 본질적 성(性) 그 자체가 부정되는 것이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또 그룹의 이름, 특별히 ‘LGBT+’라는 용어를 볼 때, ‘LGBT’에 뭔가를 더 추가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실제로 다혼주의자(여러 명의 배우자와 결혼하는 것), 자신의 일부나 전체가 인간이 아닌 다른 종이 라고 느끼는 ‘아더킨(Otherkin)’도 추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플러스(+)'표시는 새로운 성에 대한 설을 그 시작부터 끼워팔는 전략적 표현이다.

기독교인을 포함한 미국인들 중 레이디 가가의 ‘이렇게 태어났다 (Born This Way)’나 ‘당신은 당신이 사랑하는 그를 도울 수가 없다 (you can't help who you love)’ 같은 노래를 큰 거부감없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 안타깝게도 이들은 이런 대중문화의 목표가 ‘인권’, ‘관용’ 심지어 ‘정당성’ 이상이라는 것을 이데올로기 빙산의 일각이라는 사실을 모른다.

이들은 1993년 네이션지 커버스토리에서 제기된 것처럼 우리가 살고, 가정을 이루고 있는 ‘이 세상의 정체성의 본질을 이해하는 방식을 대체시킴’으로써 미국을 완전히 바꾸려고 한다.

최근 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인간의 성(性)에 관한 성경적 가르침에 따른 정체성은 우리가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성경과 2000년의 기독교 전통은 이 문제에 대해 애매모호하지 않고 분명하다.

성경의 기준 ‘음란을 버리라’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말한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따르지 말라”(3~5절) 그는 덧붙이기를,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또한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8절)

데살로니가전서는 신약성경 중에서 가장 오래된 책으로 처음부터 성윤리에 대한 전통적인 기독교의 가르침을 선포하고 있다.

이 가르침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성명서에서 주장하는 것과 달리 성령님의 “성경과 기독교 전통으로 돌아오라”는 ‘부르심’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다. 실상은 그 반대편에서 있다. 그들은 매우 다른 영, 즉 이 시대의 영의 촉발에 따라 성경과 전통을 모두 함께 버리고 있는 것이다. 이 시대는 진리와 현실보다 그것을 취하는 사람 마음대로인 시대이다. [GNPNEWS]

번역. 국제팀

애플사, 앱스토어에서 낙태 반대 앱 삭제

구글의 플레이스토어에서도 앱 검색 안돼

미국 IT기업 애플은 스마트폰 아이폰용 앱스토어에서 생명보호 앱 프로그램을 삭제했다고 크리스천 헤드라인이 최근 밝혔다.

생명보호운동단체인 ‘인간연합(Human Coalition)’이 만든 앱 프로그램은 개인과 교회가 낙태를 고려중인 익명의 여성들을 위해 실시간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낙태 반대 지지자들에게 기도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이다.

생명보호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인간연합은 미국에서 30초마다 1명씩 태아가 낙태되고 있다며 낙태 반대를 통해 생명보호에 대한 인식 재고를 위해 이 앱을 개발했다.

또한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용으로 제작된 인간연합의 낙태반대 앱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구글 플레이에서도 검색되지 않아, 구글도 이 앱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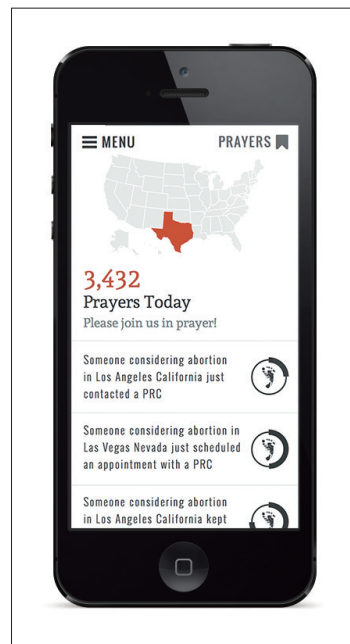
애플은 인간연합의 낙태 반대 앱이 특정 기능의 요구사항을 위반

했다며 앱을 삭제했다. 이에 대해 인간연합측은 애플사와 대화를 통해 “이 앱이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시켰으며 다른 개발자의 유사 앱들보다 기능면에서 뛰어나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애플측은 앱의 변화를 준대해도 앱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상당수 미국 언론들은 낙태를 지지하는 성향의 기사를 게재하고 있으며, 낙태 반대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인간연합의 각종 활동을 공격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구글과 페이스북 등 미국 IT기업들이 후원하고 있는 미국의 진보 성향 단체 ‘넷루츠네이션’은 2017컨퍼런스에서 인간연합의 낙태 반대 활동에 항의하는 사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인간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에서 낙태반대 활동에 대한 감시활동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 인간연합(Human Coalition)에서 만든 앱 프로그램

또한 낙태를 지지하는 언론들은 낙태 반대 활동가들의 활동을 견제하기 위해 허위 또는 왜곡된 가짜뉴스를 생성, 유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GNPNEWS]

번역. 국제팀

호주, 안락사 합법화에 이어 한국도 존엄사 인정

한국, 내년 2월에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예정

지난 29일 호주 2대 주(州)인 빅토리아주가 안락사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2019년 6월에 발효된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빅토리아 주는 호주 내 처음으로 안락사를 허용하는 주가 됐다.

이 법에 따르면 수명이 6개월 미만인 18세 이상 말기 환자가 빅토리아에 최소 1년을 살았을 경우 치사량의 약을 요구할 수 있다. 또 루게릭병으로 알려진 운동신경질환이나 다발성 경화증을 앓는 경우에는 조건을 완화할 수 있다. 그러나 호주의학협회(AMA)는 개선된 통증 완화 치료를 통해 고통이나 다른 위험 증상을 다룰 수 있다며 안락사에 반대한다는 뜻을 표한 바 있다.

한편 한국에서도 존엄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내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23일부터 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연명의료 시범사업 중간결과’ 발표를 통해 지난 1일부터 24일까지

7명의 환자가 연명의료를 받지 않고 사망했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19세 이상 성인이 나중에 질병으로 임종기에 접어들었을 때 연명의료 중단·유보 뜻을 미리 밝혀놓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늘었으며 시범 사업 한 달 만에 작성 건수는 2197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연명의료’란 회복 가능성이 희박한 환자에게 제공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 등을 의미하는데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응급상황에서 이 같은 연명의료를 받지 않거나(유보), 현재 받고 있던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그동안 존엄사는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존엄사란 말 자체가 인위적으로 인간의 생명을 중단시키는 조치라는 점에서 안락사의 한 유형이라는 것이다. [GNPNEWS]

기획 | 조선선교열전 (11) - 전라남도 편

전라북도를 넘어 남도로, 목포에 선교기지가 세워지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올해 한국의 기독교 역사는 132주년을 맞고 있다. 구한말부터 본격화된 개신교 선교 역사는 문화, 교육, 의료 분야에서 우리나라 역사와 맥을 같이 하며 한반도의 근대화와 함께 진행됐다. 우리나라 곳곳의 선교역사를 통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겨본다. <편집자>

목포 선교부의 설립

1894년 이후 미국의 남장로교 테이트와 레이놀즈 선교사에 의해 전주에 선교부(Mission Station)가 세워진 후 전라도 남부 지방 선교부 설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전라도의 북부 지역으로만 선교사업이 치우치는 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선교사 회의는 1895년 6월 벨(Bell) 목사를 전라도 남부 지방의 개척 책임자로 정했다. 벨은 전주에 있던 해리슨(Harrison)과 함께 한 달 남짓 동안 남부 지방 좌수영 등을 둘러보았다. 그러나 이곳은 교통이 불편해 차라리 남부의 내륙지방이자 행정 중심지인 나주가 선교 후보지로 지목됐다. 당시 나주는 전라남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였다.

벨은 전킨과 함께 1896년 11월에서 12월 사이 4주간의 일정으로 나주 지방을 방문·답사하고 1897년 이른 봄에는 선교 기지로 초가한 채를 구입해 거처로 삼았다. 그리고 어학 선생이자 매서인(賣書



▶ 딸을 데리고 농민에게 전도하는 벨 목사(위), 1898년 벨과 해리슨 선교사의 전도여행 모습(아래)(출처: 한국기독교교회사)

인: 성경을 팔거나 복음을 전했던 사람) 변창연과 더불어 거리 전도를 했다. 그즈음 조선 정부 안에서는 친일·친청·친러파의 세력들이 심각하게 각축을 벌이고 있었다. 궁중에서 민비가 시해되는 참변이 일어나고, 고종 황제가 러시아 공관으로 거소를 옮기는 아관파천으로 인해 정세가 불안해졌다.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나주 관아

의 관리들은 강한 쇄국사상을 그대로 지니고 있어 외국인의 성내거주를 허락할 수 없다고 했다. 벨과 전킨이 나주 선교를 계속하려 하자 이번에는 나주의 양반 유지들이 일어났다. 그들은 양민들은 나주에서 떠나라며 사람들을 보내 죽이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나주의 외국인과 외래종교에 대한 반대는 군산이나 전주에서 겪은 것

보다 더 심했다. 선교부는 나주 선교부 설치를 포기하고 변창연을 남겨 두고 떠나야만 했다. 그러는 동안 1897년 10월 1일 목포는 외국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무역항이 되었다. 후에 목포는 나주보다 더 크고 빨리 성장하는 도시가 되어 전남선교의 중요한 기지가 되었다.

믿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1897년 11월 27일, 목포에 도착한 벨 목사 부부는 함께 온 한국인 조력자와 함께 방 한 칸을 빌어 같이 숙식하면서 새로운 기지를 마련했다. 12월 하순에는 아주 적합한 장소를 물색하고 가격 흥정까지 마쳤다. 그는 새로 구입한 토지 옆에 있는 초가집 한 채를 임시 거처와 예배처소로 사용하면서 천막을 치고 미국인에게 호기심을 가지고 구경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전도 운동을 벌인 지 두 달 남짓 되었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게 되자 벨은 큰 용기를 얻었다. 같은 해 11월에는 버지니아주에서 의료선교사 클레멘트 오웬(Clement G. Owen) 의사가 목포에 도착해 진료소를 설치했다. 1899년 초에는 프레드리카 스트레퍼(F. Riea Straeffler) 양이 여자들과 아이들을 위한 복음 사역을 위해 합류하면서 목포 선교는 더욱 활발해졌다. 더욱이 나주에서부터 함께 했던 변창연이

목포로 옮겨와 적극 협력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천막 교회를 이루었다. 노학구(魯學九)·김만실(金萬實)·김현수(金顯洙)·임성옥(任成玉)·지원근(池源根)·마서규(馬瑞奎)·김치도(金致道) 등 20여명이 개종하여 만복동(현 양동)에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리면서 목포교회(현 양동교회)가 시작되었다.

1899년 여름, 벨 목사는 주일 예배 참석자 수가 30명쯤이라고 보고했다. 변창연의 책임하에 접견실이 개설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질문하고 성경을 사가고 유인물을 받아가거나 그저 편하게 와서 쉬는 곳이 되었다. 1900년 3월 5일은 세례자 첫 시험이 치러졌다. 이날 네 사람이 학습교인이 되었다. 그해 봄과 여름에 30명의 세례 지원자 중 6명이 세례를 받고 8명이 학습을 받았으며 나머지는 공부를 더 하기로 했다. 선교사들은 초기 성도들의 성품을 기뻐하며 이렇게 적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 오후에는 두 사람씩 짝지어 세상으로 나가 설교했다. …그들은 이미 교회를 지을 계획을 얘기하고 있었다. … 아무도 자기가 믿게 된 구주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하지 않고서는 세례를 받지 않았다.” <계속> [GNPNEWS]

참고문헌: <한국선교이야기>(조지 톰슨 브라운 지음, 도서출판 동연, 2010)



선교 통신

잃어버린 노트북이 우리 삶에 그토록 소중한 것은 아니었다

고국 땅이 완연한 가을일 때, 이곳은 낮 기온이 40도가 넘고 밤 12시 기온이 30도가 넘어 열대야로 잠을 설치는 여름입니다. 날씨가 더워서인지 하루하루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도 모르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그분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둑맞은 가방

지난 추석 바로 전날에는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노트북과 태블릿PC, 그리고 외장하드 2개를 도둑맞은 것입니다. 집에 도둑이 들어온 것은 아니었고 저희 차 뒷좌석에 두었던 가방을 누군가 훔쳐갔는데, 그 안에 있던 것들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이곳에서 도둑을 맞고 물건을 잃어버리는 것은 종종 일



본지 자료 사진

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당하고 나서 저희 부부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한동안 더욱 주님으로 살게 해 주시고,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님으로 풀어가

게 해달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겪자 마치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잃어버린 물건들에는 저희들의 삶이 담긴 사진과 기록들,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들을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물건으로 생각하고 항상 조심하고 신경을 써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잃어버리고 나서, 그 물건들이 저희들에게 꼭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주님을 더 생각하고 묵상하며 그분께서 저희들의 삶을 더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저희들의 생각을 점점 바꾸어 주시더니 결국 이렇게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명절에 현지인에게 좋은 선물을 받았구나.”

압박 속에서 개종한 현지인

야르바(가명)라는 친구와는 최근 더 깊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이곳에서 개종

자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 간접적으로 보게 됩니다. 야르바는 주위의 많은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아내와 처가로부터 이혼을 당했고 가족들 안에서 받는 압박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위 사람들을 전도하고자 애씁니다.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말로는 전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이웃과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대화하고 복음을 나누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몇 명의 믿는 자들이 생겨 P마을의 한 가정에서 모임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또 이웃의 친구들에게도 계속 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야르바의 소그룹 모임과 그의 복음 전도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GNPNEWS]

M국= S선교사

나눔&나눔 삶의 나눔으로 되새겨 보는 하나님의 은혜

“모든 영역에서 복음 되신 주님이 저의 주인이 되셨어요”



선교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강정구, 윤영지 선교사

강정구, 윤영지 선교사는 오직 세계선교만을 위해 결혼을 하고 구소련으로 떠났다. 그 땅의 영혼들을 예수의 제자로 세우기 위해 청춘을 바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탈진한 자신들의 모습이었다. 그 한 가운데서 십자가 복음을 만났다. 오직 복음이면 충분한 삶을 살던 가운데 다시 구소련이었던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부르심을 입은 이들을 만났다.

- 어떻게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셨나요?

강정구(이하 강):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선교단체에서 성경공부를 통해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대학 생활보다는 단체에서 훈련받는 것이 주된 일이 되었어요. 학생 선교단체다 보니까 선교란 주제가 제겐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예수의 제자가 된다면 당연히 선교사로 가야된다고 생각했죠. 그러다 제대할 때 짬 결혼을 하게 됐어요.”

윤영지(이하 윤): “저도 80년도에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했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선교사 이하의 삶은 없다고 생각해 고2때 선교사로 헌신하고 단체에서 남편을 만나 평신도 자비량 선교사로 구소련으로 가게 됐어요. 남편은 결혼 후 곧바로 구소련으로 나갔고 저는 당시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음해인 92년에 나가게 됐어요.”

- 선교지 상황은 어땠나요?

강: “그 당시 구소련은 아직 한국과 수교를 맺기 전이었어요. 우린 85년부터 철의 장막이 무너지기를 기도해왔어요. 그러다 한 유학생이 동유럽에 들어가게 된 것이 신호탄이 되어 가게 된 것이죠. 근데 마침 91년도에 구소련이 붕괴됐고 15개의 독립 국가들이 생겼어요. 전 그중 K국에서 개척을 하게

됐고 아내를 초청했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대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제자 삼는 사역을 했어요.”

대학 때 복음 만나고 바로 선교사로 헌신

- 선교사역은 어땠나요?

강: “제가 사람들과 교제를 잘 못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가게 되면서 중등부까지 다녔는데요. 중등부 회장 될까봐 두려워서 그만 뒀어요. 워낙 내성적이어서요. 그러다보니 오로지 현 지인들과만 접촉하면서 제자훈련을 했어요. 한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이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연합 아니냐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교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현지에 형식적인 신자를 세우는 게 아니라 제자를 세워서 예수님 제자 수준만큼 만듭니다.’ 이런 식의 생각이요.”

윤: “처음 선교현장에 갔을 때 학생들과 만나고 현지인들과 대화하고 그들을 제자삼아 나와 같은 선교사로 세우는 목표를 가지고 쪽 달렸어요. 그러나 제 생각과는 많이 달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복음을 잘 모른 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윤: “제가 생각한 선교는 부지런히 제자들을 가르치면 열매가 맺히고, 수적으로나 영적으로 부흥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는데 순종이나 성장이 없었어요. 그 모습에 제가 많이 지치더군요. ‘나의 힘과 지혜로는 어떻게 할 수 없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더 깊이 자라지 않고 바리새인과 같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게 제 모습인줄 알면서도 판단하고 정죄했죠. 그들을 품을 수 없는 한계가 왔어요.”

강: “제자를 양성한다며 열심히 가르쳤는데 사람이 변하지 않은 것에 많은 한계를 느꼈어요. 그러나 그들은 다른 교회 성도들에 비하면 헌신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다보니 여기까지인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존재의 문제에 들어가다 보면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그러나 이들과는 더 변하지 않는 내 모습 때문에 실망스럽고 목이 말랐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내가 여전히 살아서 주님을 섬기려 했으니 안 된 것이었죠. 그런 가운데 저는 점점 위선과 외식으로 복음에서 비껴갔어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거룩한 척해야 하는 삶에 목마름이 더해갔어요. 그러다 선교사 복음학교를 한다는 말을 듣고 바로 달려갔어요. 충격이었어요. 이런 복음이구나. 그리고 제가 총체적인 복음의 관점으로 성경을 본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위선과 외식의 삶에 목마름

- 그 훈련과정을 마친 후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윤: “남편이 변화되는 것을 보았어요. 탈진한 모습은 사라지고 아주 평안했어요. 이후 제자들 7명도 훈련과정에 다녀와서 완전히 변화됐죠. 복음이면 충분하다고 외치면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데 제게 희망이 비취으면서 이런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그러나 제 젊음을 바쳐서 섬겼을 때 변하지 않던 이들이 단 일주일 만에 변했다는 것이 당혹스러웠어요. 당시 저도 죄 가운데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야겠다고 결정하고 한국에서 열리는 훈련에 참여하게 됐어요. 복음을 만나고 나니 육적인 제 삶은 완전히 파산인데 영적으로는 새 피조물, 새 선교사로 회복된 극적인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 복음이 가져온 놀라운 변화네요.

강: “저는 그 이후 중국과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열리는 복음훈련에 섬김이로 다 쫓아다녔어요. 그러나 실상 복음의 핵심은 놓치고 있었죠. 복음을 듣고 충격은 받았는데 곧바로 머리가 어떻게 돌아갔나면 이것을 잘 요리해서 현지 제자들을 훈련하는 프로그램으로 써먹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녹취 수준으로 필기했어요. 그러니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존재적 죄인 된 실제 앞에 서질 못했어요. 더욱 목말랐어요. 주님과 함께 죽은 죽음이 내게 어떻게 실체가 될 수 있는지. 다시 아내와 함께 복음훈련에 참석하면서 이 복음이 내게 실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기도에도 응답하셨죠.”

- 어떻게 응답하셨나요?

강: “복음훈련이 끝나고 다음날 아내가 자신에게 실체가 된 복음을 정리해서 읽어줬어요. 그것을 듣는 순간 주님이 응답하셨구나 깨닫게 됐어요. 아내의 이야기 속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열매들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의 시간들은 나의 죽음을 십자가로 처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실습하는 시간이었어요.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가. 비로소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믿음을 써 볼 수 있었어요. 믿음 위에서 있을 때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믿음이 아닐 땐 지옥을 경험했어요. 이게 몇 년 동안 반복되었어요.”

윤: “죄의 열매와 저에게 실제 된 복음을 나누고 나서 드라마틱한 시간이 펼쳐졌어요. 부부 안에서 뿐 아니라 우리가 세웠던 교회 리더들과 한인 선교사들, 한국과 세계에 퍼져나간 선교단체 리더들에게 실제 된 복음을 나눴죠. 죽음을 확인하는 시간들의 연속이었어요. 복음으로 이해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오히려 믿고 신뢰하던 분들로 부터 정죄와 판단을 받았어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터를 흔들어버리셨어요. 결국 우리 가정은 홀로 서기를 해야 했어요.”

다시 선교사 훈련생으로 재출발

- 복음이 실제 되는 과정은 만만치 않은 것이군요.

강: “삶의 모든 터를 허물고 모든 것을 0점 처리하고 다시 시작한다는 기분이었어요.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데 주님이 흥해 앞에 세우시고 우리의 뿌리를 뽑으시는 것 같았죠. 단체를 나오고 보니 갈 데가 없어서 살던 지역에서 1년 정도 교회를 순방하며 다니다 2007년에

원했어요. 그동안은 나의 최선으로 주님을 따라왔다면 이제부터는 믿음이 아니면 따를 수 없는 상황들이 이어졌어요. ‘보이지 않는 주님의 공급하심을 어떻게 믿고 사는가.’ 상상할 수도 없는 주제였어요. 평생 자비량 선교사로 내가 별 어려서 먹고 살았는데요. 그러나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과 함께 주님이 저의 주인이심을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또한 암을 통해서도 주님밖에 의뢰할 분이 없음을 확증해 주셨어요. 주님은 그렇게 여러 방면에서 복음과 기도로 충분하다는 결론이 내려질 무렵 해외지부, 중앙아시아지역으로 불러주셨어요.”

강: “처음에는 기쁘기보다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도망쳐나왔던 곳을 다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선교사로 십수 년을 살았지만 반드시 들려져야 할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픈 마음이 있었어요. 주님이 지금 그 마음이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중앙아시아 지역을 순방하며 복음을 선포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만났고 복음이 실체가 됐는지. 그러던 중에 현지인 복음훈련을 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현장선교사님들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던 거죠.”

- 현지인 복음훈련이라면 러시아어로 진행되는 과정 말인가요?

강: “네. 갑작스럽게 시작하게 됐어요.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주님의 뜻이 너무 분명했어요. 주님은 국내에서 먼저 3박4일간 러시아어 미니 복음훈련 과정을 섬기게 하셨어요. 어눌한 언어로 버벅대면서 했는데, 네 명밖에 안 되는 훈련생이 제게 말은 못하는데 내용은 좋



▶ 강의실을 가득 메운 러시아어권 복음훈련 현장

복음훈련을 섬기고 있는 선교단체로 초대받아 갔어요.”

윤: “단체 안에 있는 기도센터에 머물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았어요. 믿음의 증인은 있어도 공동체로 사는 것은 어려운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이곳에서의 경험을 통해 십자가 복음이면 공동체도 가능하다는 것을 확증하게 됐어요. 우리의 모든 경력을 0으로 만들고 선교사 훈련생으로 지

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국내에서 2회, 해외에서 5차례에 걸쳐 러시아어로 복음훈련 과정이 진행됐어요.”

- 주님의 놀라운 역사네요. 복음훈련 과정을 진행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나요?

윤: “선교현장에서 위험한 일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돼요.

(6면에 계속)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로렘나무 아래 (4)

우리를 일으키는 것은 대단한 기적이 아닌 세미한 음성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당신을 계시하신다. 엘리야 앞에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으나 하나님은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다. 지진 후에 또 불이 있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와는 계시지 않았다. 낙심하고 절망에 빠졌던 엘리야에게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들은 별 도움이 안 되었다. 오직 세미한 음성 중에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엘리야의 형클어졌던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았다.

상황 분석 잘 한다고 해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상황 분석보다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주님의 영광 앞에 서는 것이다. 극



일러스트= 임이람

단주의 무장단체가 테러를 일으키고, 온갖 만행을 저질러 사람들을 겁박하는 것은 비단 어제 오늘날의 일이 아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란하고 야단법석을 떨어도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하면 된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비웃으시리로다”(시 2:1~4)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려 하

는 세상의 대적들이 있다. 악이 기승을 부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 때,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거룩 앞에 서면 눈에 보이는 세상은 통의 한 방울 물에 지나지 않는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사 40:15)

아무리 화려한 세상도, 대단한 권세를 가진 대제국도, 미처 날뛰는 악의 축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한낱 시드는 풀에 불과하지 않은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추악한 죄인일 뿐이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라! 영광의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

면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는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털썩 주저앉게 했던 모든 것들이 안개처럼 물러난다.

엘리야를 일으켜 세웠던 것은 대단한 기적이 아니었다. 영광스런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었다.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면 듣는 자는 살아난다! 그래서 기록된 성경을 주셨다. 한 때 기억하다 잊어버리고 낙심하여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기록된 성경으로 말씀하심으로써 우리를 다시 일으켜 승리하게 하신다. 늘 진리의 말씀을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진리의 성령님은 대상과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의 영혼을 감동하시고,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신다(2016. 7 매시지 정리). <계속> [GNPNEWS]

김용의 선교사 (순회선교사. LOG미션 대표)

복음과기도미디어
GOSPEL & PRAYER MEDIA

2017순회복음집회 오디오 CD 발매

오직 믿음으로

무너질 여리고성에서 구원을 받은 라합 선민이었으나 멸하여질 물건에 손을 대어 죽게 된 아간 반드시 멸망하기로 되어있던 자가 살게 되고 당연히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자가 진멸되었다.

무엇이 이들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게 되었는가? 오직 믿음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종교개혁의 핵심이며 복음의 본질의 핵심이 되는 오직 믿음. 두려운 경교이자 감격스런 초대가 여기 있다. 완전한 복음, 하나님의 은혜를 오직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자.

복음과기도메시지 시리즈

Sola Fide 오직 믿음으로

로마서 1:16~17

오디오CD - A [B]

Track1 (00:00-22:56)
Track2 (22:56-43:34)

트랙을 선택하면 해당 지정부터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용의 선교사

GNM-032CA

순회선교단 대표 복음과기도미디어
Copyright © 2017 복음과기도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오디오 CD(2장 한세트) 6,000원
약 20분씩 4개의 트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입문의

야긴과 보아스 032-887-0235 www.jakinnboaz.co.kr

Interview

<5면에 이어>

“러시아어로 십자가 복음을 전하며”

그래도 현장에 준비된 갈망하는 영혼이 있다는 것을 보면 주님이 얼마나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하셨을까 생각하게 돼요.”

강: “90년대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서양문화와 함께 모든 교단, 이단들도 함께 들어왔어요. 그때 현지인들은 ‘축복 받아라. 병고쳐라.’는 복음을 들었어요. 현지인들은 지금 목말라 있어요. 이들에게 필요한 건 화려한 말과 많은 설명이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진리, ‘당신은 존재적 죄인입니다. 이대로 가면 영원한 지옥행벌입니다.’ 이것만 발견하면 되겠더라고요. 복음훈련을 통해 그런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복음의 진리 앞에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통곡하며 얼마나 감격하는지요. ‘옛 생명이 처리됐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여요.”

- 중앙아시아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네요.

강: “그러나 여전히 어렵죠. 지금 종교법이 강화되고 있어요.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겼지만 기독교도 탄압을 받고 있죠. 거리에서 전도

할 수 없고 성경을 공부할 수도 없어요. 등록되지 않는 교회와 모임은 불법이구요. 그런데 교회는 위축되어 있고 경제적 어려움도 있어요. 사역자들은 폴타임으로 섬길만한 재정이 없어서 사명을 내려놓고 돈을 벌기위해 한국과 러시아로 가요. 그런 곳에서 아주 진지하게 복음 앞에 부딪치는 영혼들을 보며 역시 복음밖에는 없구나. 더욱 복음이 소망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기도제목 나눠주세요.

강: “지금까지 주님이 보여주신 것 안에서 허락하시는 한 복음의 씨를 뿌린다는 심정으로 달려왔어요. 매번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순종하고 있어요. 선교지 상황이 언제 막힐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저와 열방이 복음 앞에 서며 세계선교가 완성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윤: “중앙아시아에 부흥이 있기를 기도해 주세요. 복음이 빠르게 전해지고 교회들이 복음으로 충분하게 되도록요. 우리를 밀알처럼 사용해 주시도록요.” [GNPNEWS]

Y.K.

▶ 먼저 복음훈련을 한 현지인들이 복음훈련 과정을 섬기는 모습



“네가 느끼는 하나님을 나도 만나고 싶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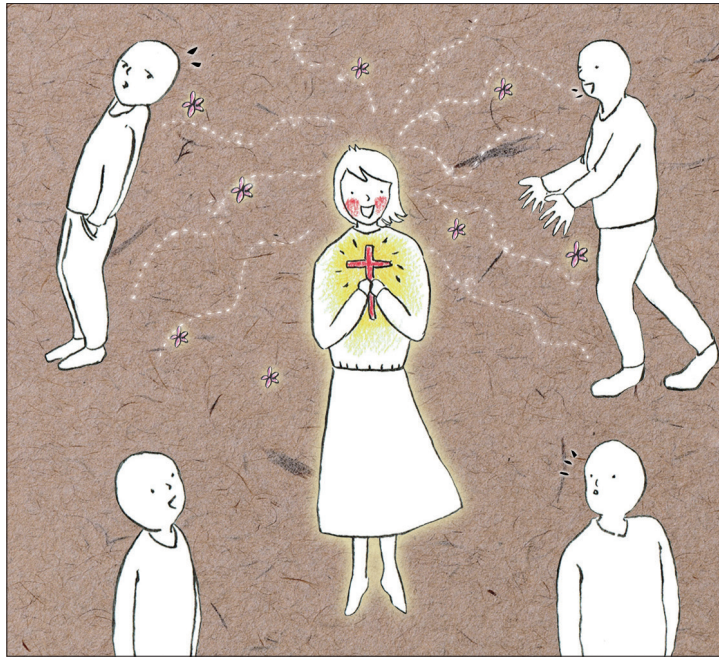
6개월 동안 선교훈련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첫 발걸음을 내딛던 순간, 마음의 고난이 있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할 일이 있을 때, 사람은 제 발로 하나님 앞으로 나온다. 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얽히고설킨 복잡한 시간을 보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저 없이 결단했다. 어떤 것도 변명할 여지없이 부르심이 확실하고 당연하기에 군소리 없이 순종했다. 기대가 생겼고, 매시간 주님의 음성 귀 기울이며 말씀 앞에 섰다. 강의를 들으며, ‘복음이 내 삶에 실제 되지 않고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선교한다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질문이 생겼다. 나는 다음세대와 청년들을 자주 만나 교제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런데 복음 앞에 서고 보니 그동안 복음을 잘 알지 못해 외모, 게임, 스포츠 등 쓸데없는 수다로 교제한 것을 알게 되었다.

어느 순간부터 교제의 자리가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하나님을 믿는 내가 청년들과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이것밖에 없나? 아무리 시간과 물질을 쏟아 부어도 변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상실감만 더

해갔다. 나는 왜 이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할 수 없는 걸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니?”라고 물으면 “왜 믿어야 해요. 하나님은 왜 보이지 않죠?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기는데요? 확신을 어떻게 가져요?” 등의 되돌아오는 질문에 속 시원히 답할 복음이 내게 없다는 것을 알았다. 게다가 난 교제는 단순히 함께 하는 것이고 즐기는 정도로 생각해 왔다.

그런데 ‘도저히 이렇게는 안 되겠다.’는 마음의 갈급함이 있었다. 지금 돌아보면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였다. 처음 훈련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기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했다. 주위 사람들에게 최대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모든 일에 이익을 얻기보다 손해 보기를 원했다. 화가 날 때도 최대한 혈기를 내려놓고 살아보려고 결단하며 나아갔다. 보고 듣고 배우는 말씀들을 기록하며,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넌지시 질문을 해보기도 했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으면 교제를 하며 친분을 쌓아갔다.



일러스트=박남희

신기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는 소리에 귀 기울여 주었다. 이전에 콧방귀만 뀌던 한 친구가 내가 전하는 복음에 반응하는 것을 보았다. “네가 하는 말씀들을 들으면, 나도 그 말씀 앞에 서고 싶은 생각이 든다.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 나는 당연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네가 이렇게 말씀을 확신 있게

이야기 하는 모습은 처음 봐. 네가 느끼는 하나님을 나도 만나고 싶고 나도 너처럼 경험하고 싶어.”라는 고백을 들었을 때 너무 놀랐다. ‘하나님, 제가 지금 진리로 교제를 하고 있어요! 감사하게 제 안에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졌나 봅니다.’ 진리에 대한 교제가 늘 부담스럽고, 어렵게만 느껴졌다.

복음으로 늘 전도하고 싶어 고민했는데, 내 삶 속에서 이것이 가능해졌다는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웠다. 이제 나도 복음 안에서 선교적 존재로 살 수 있음을 고백한다.

약 2주간의 아웃리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섬세하시고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인지 누렸다. 한 나라의 백성, 가정의 한 사람인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세우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시고 협력하게 하시는지, 중보자로 세우셔서 완전히 연합하게 하시는지... 모든 환경과 상황을 만든 치밀하신 하나님은 정말 나의 위대한 왕이시다. 그 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벽차고 감격스럽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GNPNEWS]

진미정 집사

* 믿음의 글을 받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나눠주세요. 믿음의 증인을 추천해 주셔도 좋습니다. gnpnews@gnmedia.org ☎ 070-7417-0408

부흥을 위하여

아사(餓死)의 위기에서 가족을 구원하신 하나님

이 코너는 한반도의 부흥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편집자>

탈북한 여덟 명의 가족

강을 건너 중국 쪽에 도착한 진명이네 여덟 명의 가족들은 언제든 발각되면 모두가 죽음이라는 생각에 가파른 산을 정신없이 오르고 또 올랐다. 그러는 사이 온몸에 땀이 줄줄 흘러내렸다.

몇 시간 동안 산을 헤매며 산꼭대기에 올라 안도의 숨을 내쉬는데 한 사람이 “오마나. 저기 좀 보라요. 보위부원들이 우리 가족을 찾느라 이리저리 야단법석입니다!”라고 말했다. 떠나온 곳을 바라보니 마치 아이들이 불꽃놀이를 하듯, 사람들의 움직임에 따라 불빛이 이리저리 춤을 추듯 움직이고 있었다.

밤이 깊어가자, 막내동생부터 가족들이 하나 둘 깊은 잠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진명이는 가족들을 지켜야겠다는 책임감으로 깊은 밤을 지새웠다. 너무나 막막한 생각에 진명이는 하늘에 떠있

는 달을 가만히 바라보다 퍼뜩 군복무 중에 전파방해 하는 임무를 수행하던 중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라고 수차례 들었던 말이 떠올랐다. 다급한 상황에서 진명이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



▶ CBC Radio-Canada의 <The Last Great Escape> 영상캡처

님이 정말 있다면 우리 가족이 무사히 한국에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는 기도가 절로 나왔다.

그렇게 아무도 없는 깊은 산속에서 두려움에 떨며 헤매는 나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자, 가족 중 한 명은 “내래 이제 더는 못 가겠습니다. 한 발짝도 걷지 못하겠습니다.”라며 드러누웠다. 그뿐 아

니라 가족들은 탈북을 주도한 진명이를 원망하기 시작했다. 이러나 저러나 죽게 될 것 같아 용기를 내기로 마음먹은 진명이는 마을을 찾아 내려가다가 산 속에서 양을 치는 중국인을 만났다.

말이 통하지 않아 배를 움켜쥐면서 먹을 것을 달라는 시늉을 했다. 그 사람이 따라오라고 손짓을 하기에 따라가보니 임시로 지어놓은 간이 집에서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조선말을 하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자신도 조선에서 왔다면 굶주린 진명이네 가족 여덟 명에게 음식을 준비해 차려주었다.

그의 소개로 진명이는 한 선교사를 만나게 되었고, 중국의 한 지역에서 3개월 동안 말씀을 듣고, 읽고, 성경공부를 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듣는 동안 진명이는 매일 매일 자신과 가족 모두를 안전하게 보살펴주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꿈만 같아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하나님을 만나다

“하나님, 저와 같은 죄인이 정말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선교사님의 말씀이 귀에 쫄쫄 박히게 하시고, 시편과 잠언을 외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14개월 전 한국에 도착했다. 지금도 그는 어머니와 함께 산 속에서 나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 죽을 고비를 맞이했던 가족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 [GNPNEWS]

<출처: 붉은 예수쟁이(문광서원)>

나의 소망

드리나이다

제품은 안 후스를 도우며 종교 개혁행렬에 가담했다. 그러나 1415년 4월 4일 독일의 콘스탄츠에서 체포된다. 그에게 사형이 언도됐다. 그리고 ‘마귀’라고 쓰여진 종이 모자가 씌워졌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몸을 죄인인 나를 위해 고난을 당하실 때 가시면 류관을 쓰셨다. 그러니 나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모자를 쓰겠습니다.”

사형 집행 장소로 가는 도중 그는 시편 몇 편을 노래했다. 마침내 화형대의 불길이가 그를 휩쌌다. 그는 찬송가를 불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겼다.

“불길 속에서 이 영혼을 그리스도 당신께 드리나이다.” [GNPNEWS]



뷰즈인 시네마

Views in Cinema 믿음의 승부 (Facing the giants)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다”



이 영화의 원제는 'Facing the giants', 번역하면 '거인들 직면하기다. 거인들을 직면하는 것은 믿음이 필요하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수준을 뛰어 넘는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을 더욱 찾게 된다. 크고 좋으신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면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긴 것이다. 그는 마치 운명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것은 선택할 수 없게 된다. 그분을 믿기에 거인과 같이 자신을 억누르는 두려움과 그가 처한 상황에 당당히 직면하게 된다.

기독교 학교 '샤일로'의 미식 축구팀은 그랜트 테일러 코치가 이끌고 있다. 이 팀은 시즌 내내 완패하는 최악의 팀이다. 코치 또한 재정적으로 어렵고, 아기를 원하지만 임신이 되지 않는 문제를 안고 있다. 사람들은 팀이 패배하는 이유가 무능한 코치 때문이라고 했다. 불임의 원인 또한 코치 자신이었다. 그는 자신에 대한 절망으로 고통스러워한다. 그러나 그는 시편 18편 말씀으로 그를 옥여싸고 있는 상황과 그를 짓누르는 두려움 앞에 직면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기를 주시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하게 된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운명처럼 되어 버린 순간이었다.

나는 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선

교사이다. 얼마 전 기도 시간이었다. 이 기도 시간엔 보통 네 살 된 막내가 낮잠을 잔다. 그날도 아이가 잠이 들기를 기다렸지만 자지 않고 기도 시간 동안 잠투정을 부렸다. 기도 시간이 엉망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 그때 주님이 내게 물으셨다. '너 하나님의 통치를 믿니?'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믿는 순간 주님으로 충분했다. 상황을 뛰어 넘어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을 선택하는 은혜였다.

코치는 하나님을 믿기에 실패할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주저앉아 있을 수 없었다. 팀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시작했다. 팀의 근본적인 목적을 고민하던 중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위대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자고 팀원들을 도전한다. 이기는 지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결심하며 그들 모두는 필드에서 후회 없이 전심으로 경기하게 되었다. 태도가

바뀐 이 팀은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거인들을 이겨 우승컵을 차지한다.

이기는 지든, 하나님께 영광을!

나는 긴장하면 손이 많이 떨려서 혼자서 일하는 것을 좋아했다. 복음을 만나기 이전에는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만 하며 나의 능력을 보여주는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 그러나 지금, 더욱이 공동체로 살고 있는 요즘은 사람들 앞에서 일 할 기회가 많다. 때론 긴장하여 손이 떨려 일이 엉망이 될 때도 있다.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면 주님은 나의 연약함과 두려움에도 믿음으로 직면하여 주님을 믿는 은혜를 허락하신다.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께 전부를 쏟아 붓고 결과에 상관없이 영광을 돌리는 삶을 배우게 하신다.

또한 샤일로 학교는 축구팀원인 몇 명 학생의 회개를 통해 부흥을 경험하게 된다. 영화는 이 부흥의 시작을 연로한 목사님의 중보기

도로 보여준다. 구별된 다음 세대가 일어날 것을 믿고 매일같이 학생들의 사물함을 돌며 기도했던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두 농부가 비를 위해 기도했지요. 하지만 그 중에 한 명만이 밖에 나가 비를 기다렸습니다. 어느 사람이 하나님이 비를 내려 줄 것이라고 믿었을까요?"

이 땅의 교회가 이 시대의 거대한 적들 앞에 놓여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안팎으로 들려오는 낙심되는 소식에 두려워 주저앉아 있었다면 이제 하나님을 믿을 때이다. 어떤 적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자. 믿음 외에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없는 교회로, 선교 완성의 그 날까지 사랑하는 주님을 믿고 전심으로 경기하자. 영화에서 우승한 샤일로 축구팀을 향해 환호했던 무리들처럼 믿음의 선진들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응원과 환호가 들리는 것만 같다. 마라나타!

[GNPNEWS]

김은영 선교사



일상에서 만난 하나님

“3포기의 배추가 300포기는 되어 보였다”

사역 공동체의 주방장으로 섬기게 된 10월. 이번 달 주방은 나에게 조금 더 특별했다. 왜냐하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김치를 담그라는 주문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김치를 담그라고요?’ 주부라면 한 번쯤 해 보았을 김치 담기는 내게는 넘어야 할 산 같았다. 나는 시집오기 전까지 음식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었고, 요리도 글로 배웠다. 2인분의 식사를 위해 20인분의 국을 끓이고, 카레를 한 달 분을 만들어버려 남편이 힘들게 먹다가 결국 먹기를 거부하게 만든 새책, 여전히 같이 무섭고 주방 일에서 튼 사람이었다.

앞이 캄캄해지면서 하늘이 빙빙 돌았다. 그리고 격한 심호흡으로 주님의 이름을 자꾸만 부르게 되었다. 그렇다고 주님의 명령에 “No.”라고 할 수 없었다. “네. 아멘!” 대답을 하고 난 후, 인터넷에서 김치 담그는 법을 수십 번 검색했다. 결정을 내리고 3포기의 배추를 샀다. 처음 담그는 김치라 실패를 예상하고 배추를 적게 샀다. 배추 3포기가 내게는 300포기는 되어 보였다. 김치 담글 날을 정하고 배추를 볼 때마다 올림픽을 치를 선수처럼 마음을 굳게 먹게 되고 밤낮 그 일을 위

해 기도하게 되었다. 막막해 하는 날 주님이 아셨는지 나보다 먼저 앞선 도움의 손길을



열어 주셨다. 함께 계신 선교사님께서 초반에 필요한 모든 일들을 마쳐 주시고 양념만 하면 끝나도록 해주셨다. 드디어 양념을 하는 순간이 되었다. 맛을 본 다른 선교사님께서 “맛있어요.”라고 말씀하셨다. “진짜요?” 맛을 본 순간 감격스러웠다. 진짜 맛이 났다. 내 손끝에서 김치 맛을 낼 수 있다니! 놀라운 일을 주님이 하셨다.

이후 지체들의 칭찬이 내겐 주님

의 격려와도 같았다. 새로운 사건들 앞에서 믿음으로 넘어서기까지 두려워하고 떨떨 떠는 내게 주님

에 순종하기만 하면 믿음의 삶은 부요해지고, 기도하기만 하면 주님이 이루어신다는 것이 진짜였다. 믿음의 돌파 앞에서 한 걸음 떼기가 무서운 것은 ‘잘 하고 싶은 나’, ‘실패하고 싶지 않은 나’가 있기 때문이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또 나를 주목하고 있는 것이었다. 소소한 나의 일상이 믿음의 큰 일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한 걸음에 나를 드리는 돌파를 매순간 주님이 이루어 주고 싶으셨다. 한 선교사님께서 물어오셨다. “어때, 한 번 해보니 할 수 있지?”, “네. 선교사님 또 담글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용기가 백배가 됐네.” 믿음의 돌파 이후 오는 건 믿음의 용기였다. 내게서 나올 수 없는 믿음의 용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주신 승리였다.

소소한 일상에서 부딪히는 모든 장애물 앞에 손에 땀이 나고 격한 심호흡이 나올 수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주님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기에 안전하고 행복하다. 이렇게 내 작은 삶도 포기치 않으시는 주님이 열방과 곳곳에 있는 당신의 교회를 일으키실 것을 믿는다.

김미은 선교사

[GNPNEWS]

김미은 선교사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43666 예금주: 복음과기도미디어

후원자 명단

2017. 11. 17 ~ 11. 29 (가나다 순)
개인
 강은진 강종채 권혜령 김경선 김명순 김성훈 김애심 김차광 김혜신 박숙자 박승은 박주란 송경희 우 석 이경희 이복길 이상기 이영선 이지영 임향주 정은채 조경미 조명숙 주유순 허금희 무명
교회 및 단체
 강서침례교회 그루터기교회 김화제일교회 망우제일교회 산돌교회 시은좌교회 열매교회 전주온누리교회 처음사랑교회 천보산기도원 팔복감리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재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7417-0408~10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 김강호, 인쇄인: 이병동 [(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 (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